

# 우리가 바꿔온



1988



2007



2018



2024



2026

분명 세상은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송면, 김용균, 황유미.

그리고 더 많은 산재 피해 노동자들과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꿔 온 기록들.

# 세계

# 온산국가산업단지,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

2024년 8월 28일,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화학물질 제조업체 제이엠씨 공장 폭발사고.

황산저장 탱크 위에서 용접 작업 중 저장탱크가 폭발하면서 지름 7m 탱크 뚜껑과 함께 튕겨나간 노동자가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뚜껑에 깔려 사망했다.



© 울산소방본부

2025년 6월 12일, 반도체 독성물질에 하청노동자 사망.

온산국가산업단지 삼영순화 온산공장 하청노동자가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TMAH)을 드럼통에 넣다가 얼굴에 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 “빛을 만드는 노동자” 발전 하청노동자의 연쇄 사망

2025년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에서 홀로 작업 중 선반에 몸이 끼어 사망한 하청노동자 故김충현

김용균의 죽음 이후로도 발전소 현장의 다단계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함을 보여준 중대재해다. 이후 투쟁을 통해 한전KPS 하청 노동자 약 6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5년 7월 28일 동서발전 동해화력 노동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추락.

태안화력 김용균 이후 12번째 사망사고.

노동자들의 절규가 무색하게  
2025년 11월 6일,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7명이 사망했다.

언제까지 위험의 외주화가  
중대재해의 고리로 작동하게 될 것인가?



# 대불국가산업단지, 1년 2개월 간 12명이 죽었다.

최근 1년 2개월 사이 대불산단에서만 12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고, 사망자 중 3명은 이주노동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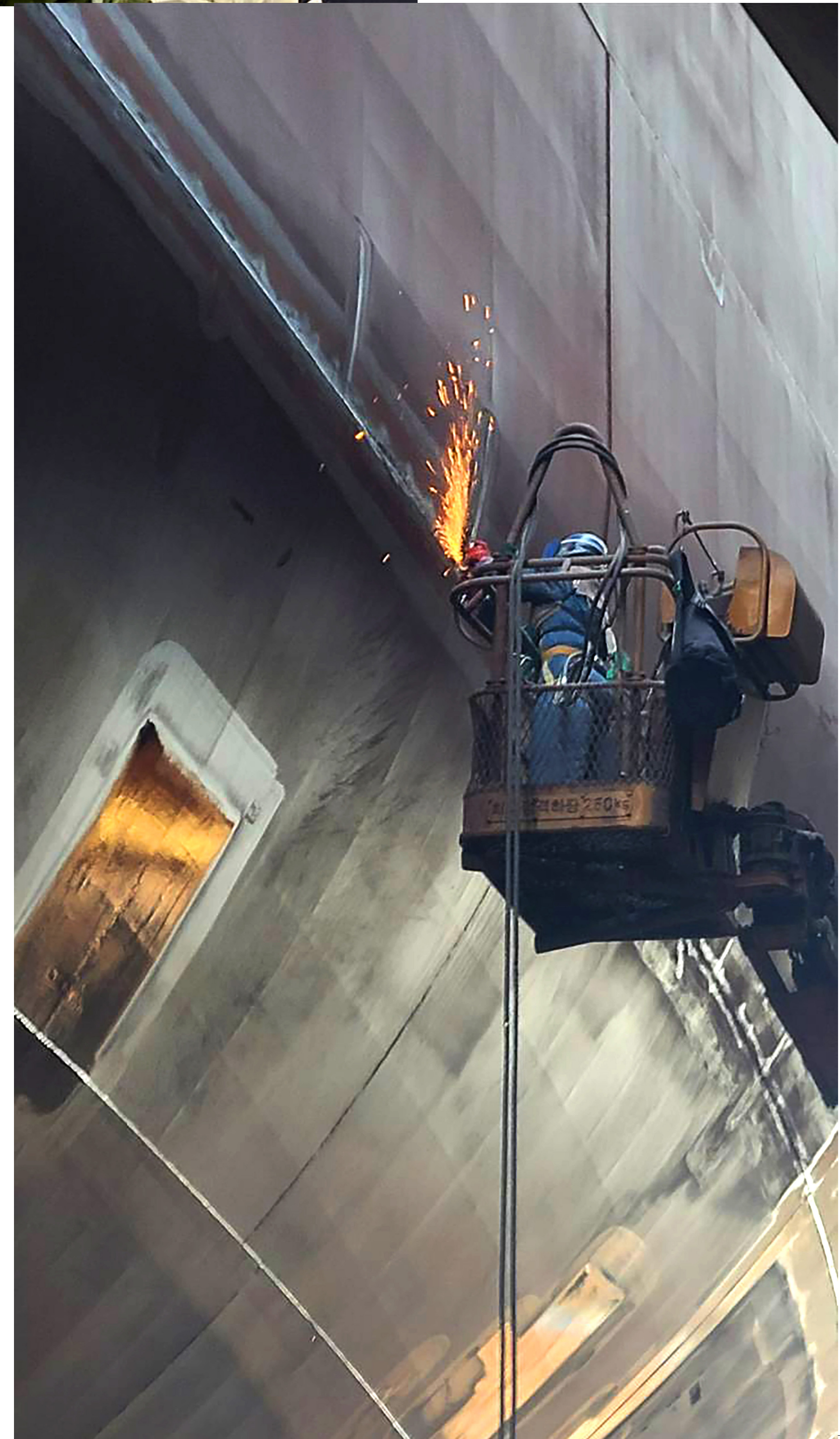
올해 2월 24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선박부품제조 하청업체에서 아르곤가스에 노출돼 숨진  
**37살 베트남 노동자 두옹 반 탄,**

28일  
대불산단 대한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선박 블록에 깔려 숨진  
**35살 캄보디아 노동자 톰 소띠에.**

분향소 앞에 선 이들은 국적도, 직업도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

이름 대신 '이주노동자'로 불렸던 이는 원청의 사과도, 제대로 된 장례도 없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거대한 선박의 상부, 노동자가 그라인더 사상 작업을 이어간다. 이 거대한 배는  
과연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3월 8일 충남 동남서산공장에서 지게차 충돌 후 자재에 깔려 숨진 5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3월 10일 경기도 이천 자갈공장,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23살 **베트남 노동자 응웬 반 뚜안**  
3월 12일 전북 부안 플랜트 공장에서 기계에 목이 끼어 숨진 24살 **태국 노동자 티타완**  
3월 13일 김포 대곶면 공장 기숙사에서 아침에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미얀마 노동자**



금속노조는 동남서산공장을 찾아 최근 계속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책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가족 9명의 생계를 책임졌던 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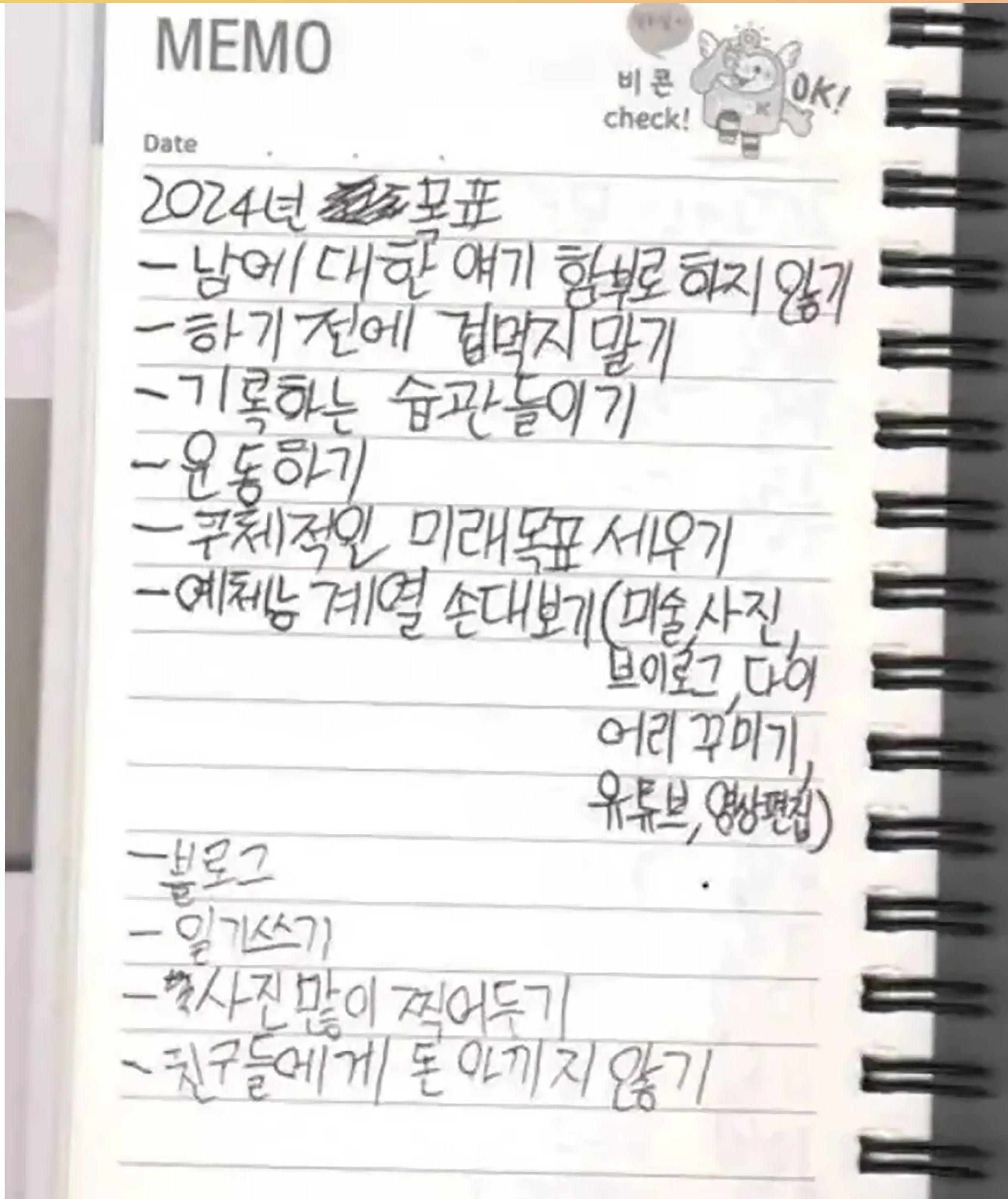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 전주페이퍼, 20개월만의 산재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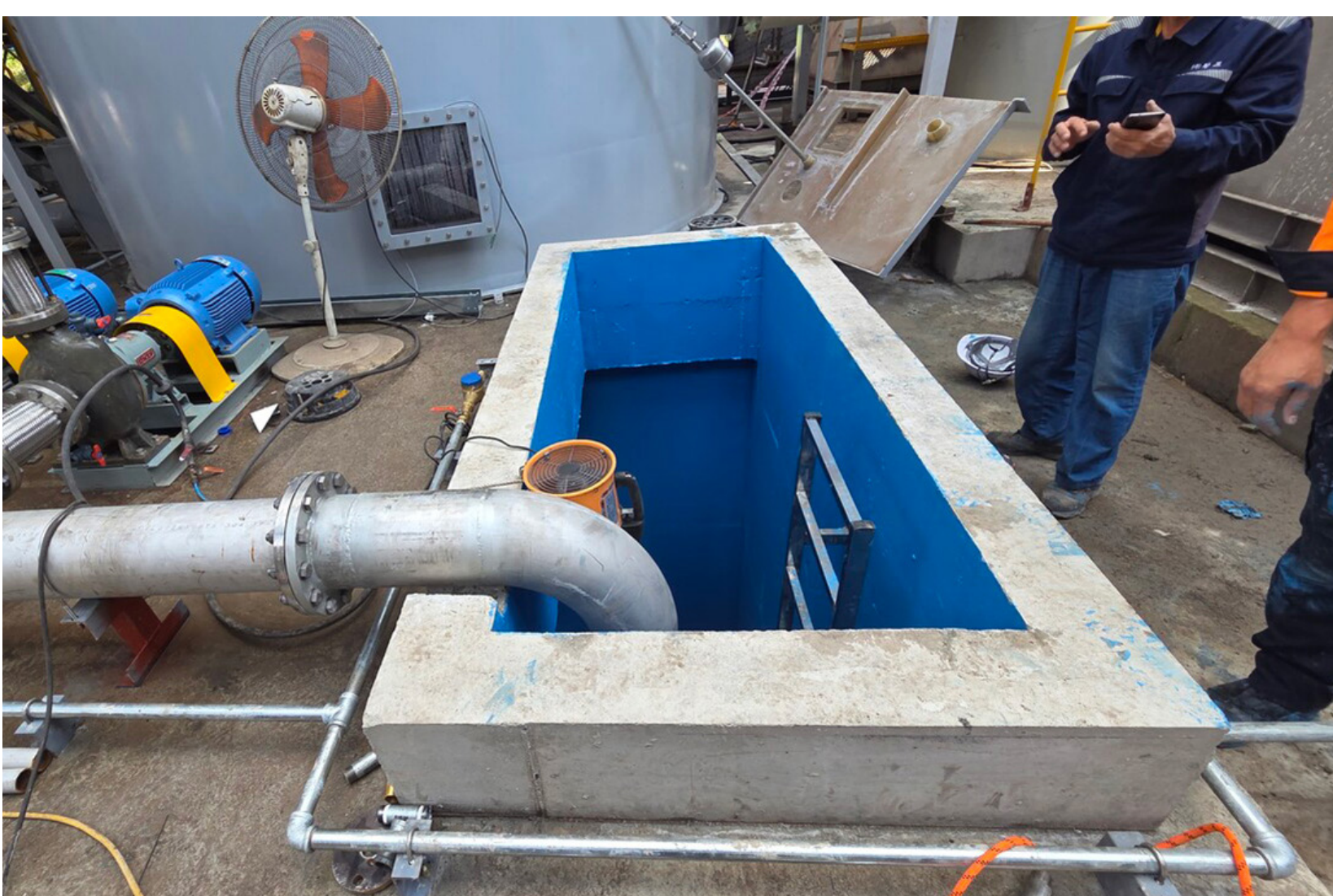
2024년 6월 16일,  
 현장실습 후 바로 입사한 전주 팔복산단 전주페이퍼에서 배관 점검 중이던  
 열아홉 노동자 박정현은 유독가스인 황화수소에 중독돼 사망했다.  
 지난한 투쟁 끝에 비로소 광주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원) © 민주노총 전북본부  
 (오) © 민주노총 광주본부

# 화려한 경주APEC 이면, 하청노동자의 죽음

2025년 10월 25일,  
 경북 경주시 안강 두류공단 아연가공업체 (주)황조에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 중 지하 수조 안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질식사고로 3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원) © 경북소방본부  
 (오) © 민주노총 경북본부



# 울산 태광산업 아라미드 공장 클로로포름 중독 사망

2026년 2월 6일,  
야간에 홀로 배관설비를 점검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포름에 노출되어 끝내 사망했다.  
7살 딸을 둔 그가 차가운 공장 바닥에 방치된 40분 동안 회사의 안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원) © 울산소방본부  
(오) © 민주노총 울산본부

# 치어 양식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수조 청소 작업 중 사망

2025년 11월 9일 경남 고성의 치어 양식장,

이 곳은 하나의 사업장을 두 곳으로 쪼개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도 일부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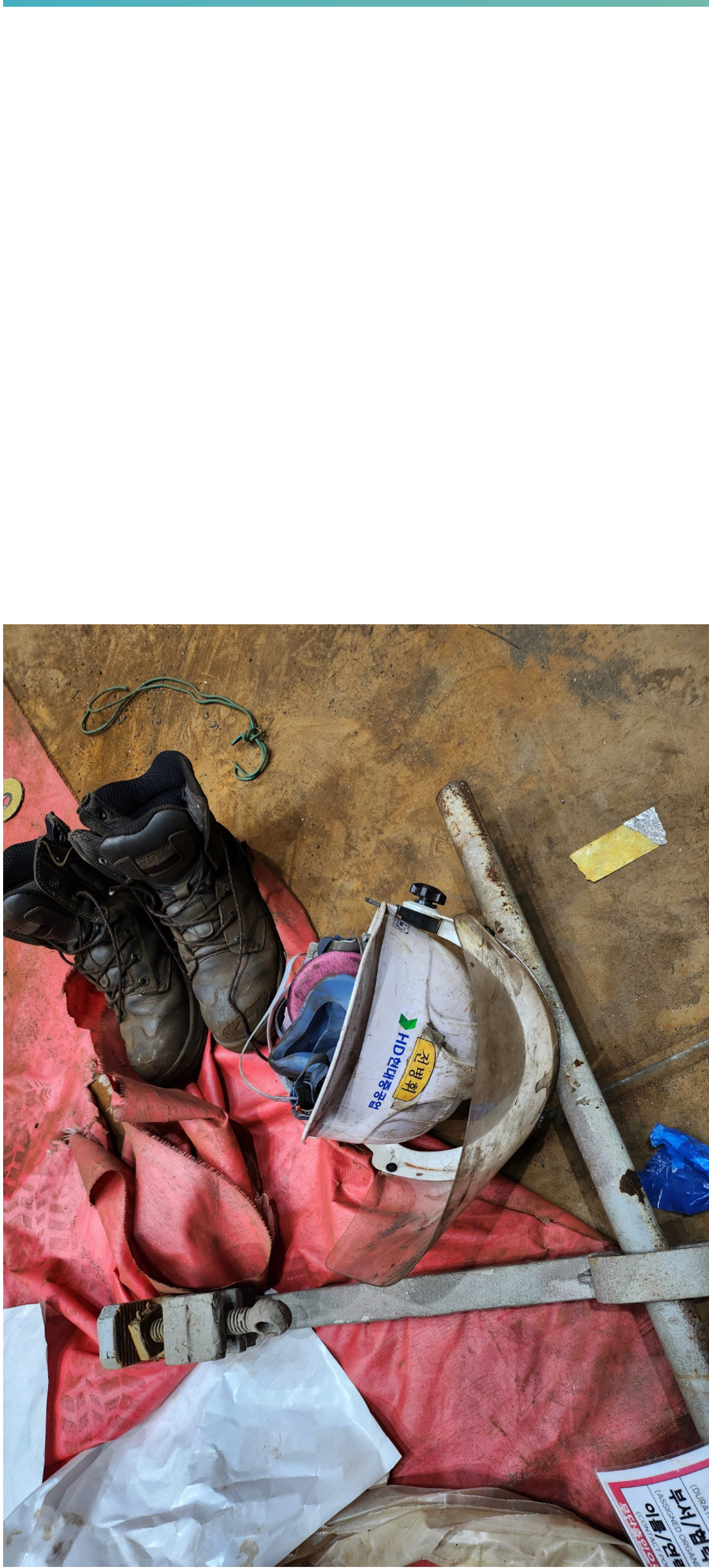
© 민주노총 경남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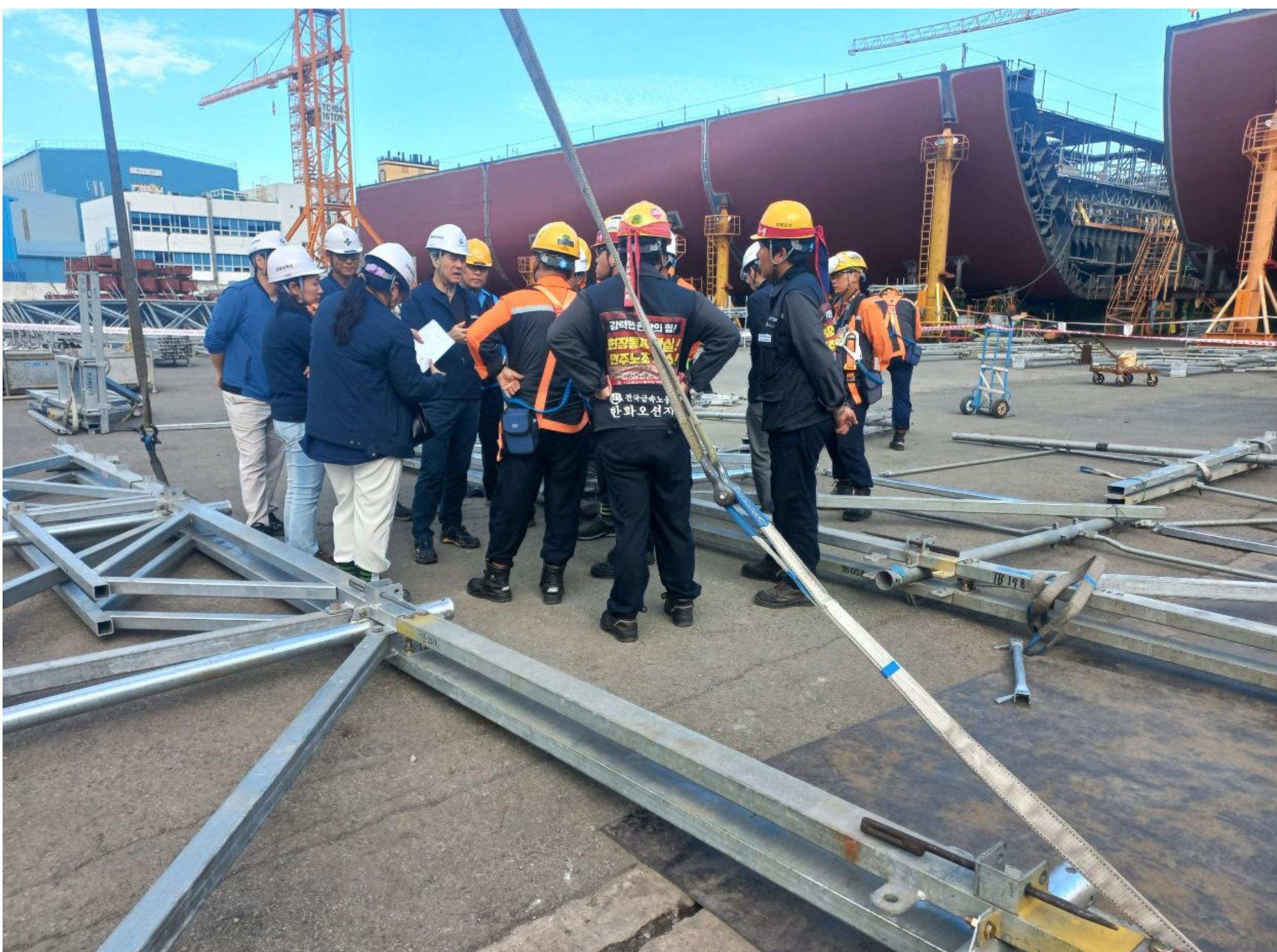
# 계속되는 조선소 중대재해

2024년 10월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건조 중인 선박 메탄올 탱크 밀폐구역 질식사

조운산업 故전병휘 노동자는 사고 전 알곤 용접 작업 후 충분한 환기 없이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고 당시 현장 훼손도 심각하였다. 현대중공업의 475번째 산재사망자다.



(원) © 금속노조  
(오) © 민주노총 울산본부



2025년 10월 17일,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시스템 비계 구조물이 무너져 사망

한화오션에서 시스템 비계 조립 및 설치  
작업 중 비계가 무너지며 노동자를 덮쳐  
구조물에 끼여 사망.

한 해동안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화오션은 2025년 경남 최악의 살인기업  
으로 선정됐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 안전공업, 막을 수 있었던 참사

2026년 3월 20일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폭발로 14명이 죽고 60명이 다쳤다.

아리셀참사 이후 불과 1년 9개월 만에 또다시 화재폭발 참사다. 15년간 7차례나 화재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도 계속됐지만 위험은 방치됐다.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다.



© 민주노총 대전본부

© 한겨레



# 쿠팡 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와 산재은폐에 맞선 투쟁

김범석 쿠팡 회장이 직접 산재은폐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쿠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며 노동권 침해를 반복해 왔다.  
유족과 노동자들은 쿠팡 본사로 달려갔다.



© 민주노총



3,300만 명에 달하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잇따른 노동자 과로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재 은폐 의혹에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故장덕준님의 유가족도 함께했다.



© 공공운수노조

#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 규제로 나아가는 투쟁

“사람의 목숨보다 급한 택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가족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가족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까”



© 서비스연맹

2025년 11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속도보다 생명의 사회로!'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2025년 5월 19일 새벽3시,  
SPC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주야 맞교대와 저임금 구조 속에서,  
SPC에서는 2022년 이래  
끼임사로 3명, 과로사로 3명이 죽었다.

해마다 406명이 밤에 일하다 죽는다.  
병원, 공항, 청소 등  
다양한 영역의 야간노동은 여전하다.



© 화성식품노조

# 멈추지 않을게, 안전한 세계를 향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작업중지권은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민주노총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일터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왔다. 투쟁의 결과로 부족하나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향해 민주노총은 다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



# 산업단지 안전을 지키는 민주노총

## 인천, 산업단지 중대재해에 함께 대응하기

올해 1월 16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KP 일렉트릭에서 변압기 부속품 운반작업 중 달기 체인 용접부가 끊어져 낙하하는 부속품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 민주노총 인천본부



2025년 9월 만석동 금속제조 공장에서 캄보디아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 노동자들은 모국어로 된 현수막을 함께 들었다.

## 노동자의 눈으로 일터 안전을!

올해부터 안전보건공단 안전지킴이 사업에 1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작은 사업장 안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현장점검 활동에 나선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 안산노동안전센터

